

[생활과 윤리 주요 개념 정리본]

#1. 실천 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

행동영역: 1) 핵심 키워드 바탕으로 어떤 윤리학인지 파악하기
2) 선지: 간과 -> ⊖: 필자의 주장
3) 대전제-소전제-결론 문항은 '발문'을 주의하기
ex. ⊖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규범 윤리학:

- 1)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혜를 추구함.
- 2) 도덕적 지식은 인식 및 확증이 가능하고, 학문적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전제함.
- 3) 체계적인 윤리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메타 윤리학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기도 함.

메타 윤리학:

- 1)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하므로 규범 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함.
- 2)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탐구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함.
- 3) 언어적 의미의 불명확성은 도덕 추론 과정의 오류 유발 가능.
- 4) 메타 윤리학의 분석 결과를 규범 윤리학이 활용하므로 도덕적 실천을 위한 이론 정립에 메타 윤리학이 도움이 되기도 함.

기술 윤리학:

- 1) 도덕 현상의 인과 관계의 설명 및 기술을 중시함.
- 2) 도덕적 관행에 대한 경험적 탐구를 중시함.
- 3) 도덕 현상의 상대성을 강조함.
- 보편적 윤리 규범의 존재를 부정할 우려 존재
- 4)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해야 하는 사실의 집합이어야 함.
- 5) 각 사회 구성원의 도덕의식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기도 함.

밀:

- 1) 인간이 오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이므로 완전한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봄.

#2.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

행동영역: 1) 선지에 모르는 내용이 나왔으면, 제시문을 다시 보기

유교 윤리:

- 1) 공자: 대동사회(이상향)에서는 사람들이 가족주의에 얽매이지 않음.
- 2) 공자: 인은 타고난 내면적 도덕성임.
- 3) 맹자: 인간은 성(性)도 타고나지만, 욕구도 타고남.
- 비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음.
- 4) 맹자: 타고난 성(性)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음.
- 5) 유능한 인재가 선발되는 도덕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.
- 6) 덕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- 7) 사람을 귀하게, 가족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도리에 맞음.

불교 윤리:

- 1) 세상의 모든 존재와 현상에 우연적인 것은 없음. - 인연생기설
- 2) 절대적 존재자에게 의지해야만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것은 아님.
- 3) 불성은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태어남.
- 4) 덕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도가 윤리:

- 1) 도(道)는 천지 만물의 근원임.
- 2) '도'는 분별이 없지만, 인간 중심적 사고는 '상대적인 개념'이 있음.
- 3) 장자: 타고난 성(性)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 인간이 될 수 있음.
- 4) 도는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이며,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것임.
- 5) 자연(天)은 인간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고, 어질지 않음.[不仁]
- 6) 예법도 인위에 속하므로, 예법에 따른 삶도 지향하지 않음.
- 7) 덕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.

칸트:

- 1) 도덕적 행위는 그 자체로 목적인 행위임. - 행복과 양립 가능
- 2) 도덕적 행위는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도덕 법칙을 준수하는 행위임.
- 3) 도덕적 행위는 정언 명령에 따르는 행위임.
- 4) 자연 체계 내에서의 인간은 다른 동물과 같이 평범한 가치를 지님.
- 5) 이성은 인간 존엄의 근거이자 도덕적 행위의 동기임.
- 6) 행복함은 모든 이성적이며 유한한 존재들의 필연적 욕구임.
-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임.
- 7) 의지는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임.
- 8)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의무론적으로 접근함.
- 9)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의무에 맞는 행위가 될 수 있음.
- 10) 이성을 지닌 존재도 도덕 법칙을 저절로 준수하지는 않음.
- 따라서, 이성적 존재도 비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음.

자연법 윤리:

- 1) 자연법: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는 절대적인 법이자,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보편적인 법
- 2) 아퀴나스: 자기 보존, 종족 보존,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
- 3) 아퀴나스: 자연법은 인간 본성에 의거하고, 이성적으로 인식 가능한 보편적인 법임.
- 4) 아퀴나스: 자연법은 신의 영원법(신의 지혜)가 반영된 결과이고,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임.
- 5) 도덕적 행위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의무론적으로 접근함.

공리주의:

- 1) 행복은 인간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며, 도덕 판단의 기준임.
- 2) 도덕이 그 자체로서 선이 아니라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님.
- 3) 행위 공리주의: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비판을 받음.
- 4)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해야 함.
- 5) 밀: 행복 ≠ 만족, 만족스러운 것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 나올 수 있음.
ex. 만족하는 돼지 < 불만족하는 인간

아리스토텔레스:

- 1)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선인 행복은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임.
- 2) 이성의 역할은 감정과 욕구를 적절히 인도하는 것임.

매킨타이어:

- 1) 덕은 사회적 실천 또는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인간의 성품임.

신경 윤리학:

- 1) 도덕적 행위와 책임은 뇌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성립함.
- 2)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의 역할은 과학적으로 조정 가능함.
- 3)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님.

진화 윤리학:

- 1) 인간의 도덕성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일종임.
- 2) 도덕적 행위는 단순히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님.

#3. 삶과 죽음의 윤리

행동영역: 1) A <-> not A: 선지가 모호할 때 판단 도구로 사용할 것.
2) 독해형 문제의 제시문 중 안긴 문장을 주의할 것.
ex. (미래의) 합리적이고 자의식적인 존재

유교:

- 1) 죽음이 아쉽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함.

불교:

- 1) 인간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으로 구성되며, 오온의 해체는 죽음임.
- 2) 생사는 차별 없는 연속적 순환 과정임.
- 3)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죽어야하므로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됨.

도가:

- 1) 삶과 죽음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임.
- 2) 생사는 차별 없는 연속적 순환 과정임.
- 3) 죽음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될 문제가 아님.
- 4) 삶과 죽음은 같고, 죽음은 아쉬운 것이 아님.

하이데거:

- 1) 죽음은 현존재에게 가장 고유하고, 가장 극단적이며, 다른 가능성들에 의해 능가될 수 없으며 혼자 떠안아야 할 문제임.
- 2) 죽음은 결코 넘어설 수 없으며 피할 수 없는 것임.
- 3) 살아 있는 동안에 죽음을 직시함으로써 현존재는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.
- 4) 선구적 결의: 인간은 죽음을 직시함으로써, 일상적 존재로부터 벗어나 본래적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존재임.
- 5) 인간은 다른 현존재와 교류할 여지를 완전히 잃어버리면서(물고섬)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음.
- 6) 죽음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한 현존재에게 불안감을 줌.
- 7) 죽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음.
- 8) 오직 인간만이 죽음에 대한 숙고를 통해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음.

에피쿠로스:

- 1) 죽음은 인간을 구성하던 원자가 흩어져 개별 원자로 돌아가는 것임.
- 2)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.
- 3) 죽음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될 자연적 과정임.
- 4) 죽음을 회피할 필요도, 두려워할 필요도 없음.
- 5) 죽음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알면 죽는다는 사실조차 즐거움.
- 6)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, 신은 인간 세계에 큰 관심이 없음.
- 7)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원자로 구성되고, 몸은 영혼을 둘러싸서 보호함.
- 8) 유물론적 관점(=물질주의)에서 영혼이 비물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봄.
- 9)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남.

안락사:

- 1)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진행 과정을 일시적으로 저지하거나 연명시킬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를 말함.
- 2) 소극적 안락사는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임.

#4. 생명 윤리

행동영역: 1) 선지 판단이 막히면, 제시문을 다시 볼 것.

우생학:

- 1) 우수한 생물종을 만들려고 하는 학문을 우생학이라 말함.

레건:

- 1) 한 살 이상의 포유류는 믿음, 욕구, 지각, 기억, 감정, 의식 등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내재적 가치를 지님.
- 2) 도덕적 행위자와 도덕적 무능력자 모두 도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짐.
- 3) 일부 동물이 감정적인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희망과 목적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봄.
- 4) 동물종, 서식지, 생태계 그 자체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이 아님.
- 5) 동물에 대한 인간의 관행이 잘못된 것은 동물들에게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임.
- 6) 쾌고 감수 능력은 도덕적 지위를 갖기 위한 필요조건임.

아리스토텔레스:

- 1)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함.
- 2)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목적을 지님.

코헨:

- 1) 동물은 윤리 규범의 고안 능력과 자율성 등이 없으므로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없음.
- 2) 인간은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지만, 그렇다고 해서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.

칸트:

- 1)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환원되지 않는 의무는 없음.
- 2) 동물들을 간학하게 다루는 것은 '타인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'에 악영향을 끼침.
- 3)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친절하게 대해야 함.

싱어:

- 1) 동물 실험에 대해 항상 반대하는 것은 아님.
- 2) 모든 동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.
- 3)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항상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.
- 4) 인간만이 높은 수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지만, 이것이 다른 동물의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해도 좋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봄.
- 5) 농장, 동물원, 실험실에 갇혀 있는 모든 동물을 풀어 주어야만 진정한 동물 해방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편견과 부도덕성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동물 해방이라고 봄.
- 6) 동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인간이 동물을 '얼마나 귀여워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가'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동물에 대해 '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'에 있다고 봄.
- 7)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으므로 인간과 동물이 갖는 권리에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봄.
- 8) 유정적 존재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구체적 내용은 대상의 특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봄.
- 9) '절대로'나 '결코'를 주장하는 절대주의자의 주장은 구체적 상황에서 호소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봄.
- 10) 쾌고 감수 능력(유정성, 감수성)을 도덕적 지위 부여의 필요충분조건으로 봄.
- 11)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봄.
- 12) 동물종, 서식지, 생태계 그 자체는 인간의 직접적 의무 대상이 아님.

아퀴나스:

- 1)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정의한 게 아님.
- 2)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친절하게